



김재범 기자의 Tourology

해외여행 3000만 시대, 2018년 주목할 트렌드는

인센티브 투어 ‘탈중국’

동남아 등 中 제외 지역서 전년비 25% 증가

“기간은 짧게, 횟수는 자주” 여행은 워라벨

(Work and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1인 맞춤형·멀티세대 여행상품 증가
경제적 실속 여행에 심리 만족 추구
일과 삶의 구분으로 해외여행 성장세



여행 아직 정확한 집계 수치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난해 해외로 나간 국민 숫자는 대략 2600만 명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증가세는 계속되어 올해는 해외여행객이 무려 30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해외여행을 하는 시대. 여행 행태도 이전과 달리 무척 복합적이고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서로 상반된 트렌드가 동시에 인기를 얻는가 하면, 심리적 만족을 추구하는 가심비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다국적 온라인 여행사 트립닷컴과 함께 2018년 해외여행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는 트렌드를 짚어보았다.

●**혼행족·족행족 증가, 멀티세대 여행의 등장**
트립닷컴은 올해도 나홀로 여행, ‘혼행’이 인기 높은 트렌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500만으로 추산되는 1인 가구는 여러 분야에서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핵심 계

층이 됐다. 기업마다 1인 가구를 위한 제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여행업계도 다르지 않다. 호텔에 혼자 투숙해도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1인 고객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다른 사람과의 일정 조율이 필요없다는 혼행의 장점을 극대화해 내키면 계절이나 시기 상관없이 여행을 떠나는 족행족도 꾸준히 증가해 여행 성수기와 비수기의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혼행족, 족행족의 증가 한편으로는 가족여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가족여행이 어린 자녀와 부모가 함께 여행하는 것이 주류였다면, 이제는 독립한 자녀와 부모 간의 여행이 새로운 추세로 등장했다. 부모와 자녀 외에 조부모와 친척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여행하는 ‘멀티세대 여행’(multigenerational travel)은 해외여행시장에서 주목 받는 키워드다.

●**실속 ‘가심비’에 심리 만족 ‘가심비’ 가세**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였다. 한국관광공사의 ‘2017 해외여행 실태 및 2018 해외여행 트렌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내식 등의 서비스가 없는 대신 요금이 저렴한 저가 항공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2017년 국

민의 해외여행 평균 횟수가 2.6회로 전년보다 0.5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더 싸게 예약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여행예약 앱이나 가격비교 앱을 다운로드해서 가격 격을 검색해 비교하는 것은 이제는 여행을 준비할 때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가성비에 더해 가심비라는 새 선택 기준도 주목받고 있다. 가심비는 가격 대비 심리적 안정과 만족감을 증시하는 경향이 다. 일명 ‘플라시보 소비’라고도 하는 가심비가 가장 두드러진 현상으로는 도심이나 근교의 호텔에서 주말이나 휴가를 즐기는 ‘스테이케이션’ 또는 ‘호캉스’를 들 수 있다. 또한 다른 이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즐겁게 하는 목적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심비 높은 여행이 인기를 얻고 있다.

●**혼행끼리의 동행 vs 비대면 ‘언택트 기술’**
혼행은 자신만의 일정으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반면 경제적 부담과 안전, 현지에서의 외로움이라는 단점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혼자 여행을 하는 이들끼리 취향과 일정을 자유롭게 공유해 여행 동행자를 만나는 플랫폼이 얼마 전 국내 여행시장에 등장했다.

반대로 여행 중 불가피하게 사람과 마주치는

상황을 줄여주는 ‘언택트 기술’도 여행시장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 인공지능(AD)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기술을 통해 이미 일부 공항이나 대형 호텔 그룹에서는 얼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해 항공 탑승수속이나 호텔 체크인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여행업체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트렌드에 맞춘 다양한 상품을 개발해 선보이고 있다. 솔로여행자들이 일정과 실시간 후기 등을 공유하는 플랫폼 ‘여행사람’(여행사람)에서는 자기 취향, 목적지, 일정 등을 등록하면 그에 맞는 동행자를 매칭시켜주는 ‘동행찾기’ 기능이 있어 혼행의 패러다임 변동을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가하면 하나투어는 모녀가 함께 해외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상품을 출시, ‘엄마뽕 발견’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트립닷컴의 경우, 자유여행객들이 가성비와 가심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트립닷컴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면서, 올해는 짧은 기간으로 자주 여행을 떠나는 추세가 늘 것”이라며 “자신의 삶을 일과 구분 짓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 해외여행은 물론 국내여행 시장이 더 성장할 것”으로 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2018년 해외여행 트렌드는 나홀로 여행과 더불어, 부모와 자녀 외에 조부모, 친척 등 여러 세대가 함께 여행하는 ‘멀티세대 여행’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 | 트립닷컴



홍콩 패키지 BEST 5 어디?

참좋은여행은 단거리 해외여행의 인기 여행지인 홍콩 지역의 베스트 패키지 5를 선정해 발표했다. 홍콩은 비행기로 3시간15분 정도 거리고 인접한 마카오나 중국 심전을 함께 돌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 패키지는 마카오 패키지다. 홍콩에서 페리를 타고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마카오는 카지노를 비롯한 화려한 볼거리가 매력적이다.

두 번째는 스탠리, 소호 거리,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 펙트럼, 침사추이 등 홍콩 도심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는 코스다.

세 번째는 홍콩이 자랑하는 야경 투어 포함 패키지다. 2층 버스와 페리를 타고 바다와 빅토리아 피크(사전)에서 야경을 감상하는 코스와 몽콕 야시장 투어가 포함되어 있다.

네 번째 패키지는 홍콩과 인접한 마카오, 심전까지 돌아보는 상품이다. 심전은 1부 의상쇼, 2부 민속 퍼레이드로 구성된 민속쇼가 유명하다. 민속쇼 관람과 함께 코끼리 열차도 탑승할 수 있다.

마지막은 트램 투어다. 트램은 스타 페리와 더불어 홍콩의 상징과도 같은 대중 교통수단으로 가장 홍콩스러운 정취를 감상하기 좋다. 김재범 기자

살을 빼는 것보다 찌는 것이 더 어려운 분이 있습니다

살 안찌 걱정되는 분~

나이가 들면서 살이 조금 찌고 해도 약간 나오는 것이 웬지 안정감이고 품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마르는 사람도 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체력이 떨어지고 주위가 산만하여 성적이 저하되고 특히 편식으로 인한 영양이 고르지 못하거나 성장이 빈약하다고 호소하는 부모님도 아이에게 고른 영양 섭취와 함께 ‘살찌오’를 먹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살찌오’는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서 얻을 수 없는 성분과 꼭 필요한 성분들로 출수가 잘 되어 빠르게 작용한다. 아무리 먹고 또 먹어도 살이 찌지 않거나 허약하고 매사 쉽게 지치는 등 기초체력이 없는 사람들과 이유없이 마르는 사람들은 ‘살찌오’를 꼭 한번 드실 것을 권한다.

▶ **잘못된 식습관이 마르게 한다**

나는 많이 먹는데도 살이 안탄다고 하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개 식습관이 올바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영양소만 과도하게 먹거나 부족하게 먹게되어 적절한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신이 채식 위주의 저칼로리 식사만 하는 경우라면 체중 증가는 당연히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직도 육류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이럴 때 마다 편식하지 말라.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이다. 모든 영양이 포함된 균형 잡힌 식사와 적절한 운동이 건강한 체중 유지의 지름길이다.

▶ **유전적 특성이 전체를 좌우하지는 못한다**

잘 먹어도 체중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유전적인 요인의 작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의 가족을 살펴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통 체중에 속하는지 마른 체형에 속하는지 알 수 있다. 부모가 많이 먹어도 살이 안찌는 체형이라면 자녀에 속하는 사람도 유전적인 특성에 의해 마른 체형일 수 있는 유전적인 특성은 후천적인 식습관 및 생활 습관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극복할 필요는 없다.

▶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는 가장 큰 내부요인**

신경이 예민해서 살이 안탄다는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을텐데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양분의 공급도 원활하지 않고 공담이 번고도 하여도 충분히 섭취되지 않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살이 찌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허약하거나 체력이 빈약하면 밖에서 자신이 없는 밤/당당한 체력이 부러우십니까? 출수가 빠른 체중증가제 ‘살찌오’를 드세요!

salzzio

무료상담전화: 1644-2464 |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 번호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서울사무지사: 02-522-2710

문의처: 110-1314762호

www.sunsea.kr

저출력 레이저 허리통증전문 의료기기

식약처 허가 허가번호 제허14-842 | 인체에 무자극/안전한 방법

허리에는-허리愛

1. **허리에는 1회 사용시간 40분, 자동제어됩니다.**
버튼을 누르면 1회 사용시간 40분이 자동 제정되며 하부에 2번 사용을 권장하며 4시간 한도충전으로 5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저출력 레이저는 안전합니다.**
허리에의 저출력 레이저는 허리통증 부위에 물리적 자극을 주며 통증은 가라앉고 호전되기 시작합니다. 650nm 파장과 830nm 파장을 방사하며 10만사이 이상 사용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3. **전국 100여개 통증클리닉에서 사용중...**
소모품이 없어 추가비용이 들지 않으며 허리통증에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무선충전에서 버튼만 누르면 오케이!

허리에 사용하는 레이저 기종별

허리통증 환자 중 허리통증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단 2%
수술을 감당하기 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가벼운 통증이나 일시적인 통증 등을 적절한 물리치료를 스트레칭 등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愛는 이런 분께 권합니다.
허리에는 반복적인 통증을 위해 고안된 제품입니다.
허리에는 저출력 레이저는 인체에 자극을 주지 않으며, 사용중에 통증이 유발되거나 영아나 상체를 입하지 않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염진통제와 같은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통증을 완화시켜 주어 만족스러운 효과를 제공합니다.

무료상담전화: 1661-1224 |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 번호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서울사무지사: 02-522-2710 | 문의처: 110-1314762호

www.sunsea.kr

소리를 크게 증폭하여 들려드립니다

최첨단 음성증폭기 오늘 대할인 행사

“저잡음 회로 설계로 잡음이 적으며 안전하고 간편합니다”

전문기업에서 생산한 음성증폭기 대할인 행사

2018년 최신제품

필요하신 모든 분들이 행복한 선물!!

무선형으로 뛰어난 착용감, 초소, 초경량 음성증폭기
간편한 착용, 급속 충전방식으로 손쉽게 사용
10단계 음향조절기능

이럴 때 사용하세요.

- ▶ 가족, 친구와의 대화시 큰소리가 필요할 때
- ▶ TV시청시, 방송음을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직장에서 상사의 부름을 크게 듣고 싶다.
- ▶ 상담시 상대방의 소리를 크게 듣고 싶다.
- ▶ 강사가 멀리 있어도 강의를 크게 듣고 싶다.
- ▶ 두손으로 작업하면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 ▶ 종교행사시 좀더 크게 듣고 싶다.

www.sunsea.kr

★ 이런 분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체험 후 구입하신분/택배로 받으신 분들을 3일이 경과하신 분. 제품보증보증 필립을 재가하신 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것! 2호선 서울대입구역 역(출구) 원정출고 지원

무료상담전화: 1644-2464 | 입금계좌: 농협 356-1272-3414-43 | 번호아 통신판매: 2017 서울 관악 1247호

서울사무지사: 02-522-2710